

봉은사 특별강연
김희옥 동국대 총장

불교의 '공동체 평화' 추구는 곧 준법 정신

1968년 동국대에 전체 수석 입학한 경북 청도의 한 청년 꿈은 법조인으로 활동한 뒤 교묘에 돌아와 불자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1972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30년 넘는 법조인 생활 이후 그 청년은 교단에서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바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다.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7월 29일 법왕루에서 김희옥 동국대 총장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무비, 고우, 진화, 도일 스님을 모시고 선교율법회를 진행하는 봉은사는 5주차 달에 한박씩 사회 저명 재가불자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일요일 강연에는 봉은사 신도회장 김종빈 前 검찰총장이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봉은사 신도인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나의 불교 생활과 불교적 가치 구현'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무부 차관 등 법조계 생활 동안 겪었던 사연들과 그 과정에서 삶의 원동력이 됐던 불교와의 인연을 전했다.

정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 29일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불교생활과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경청했다.



김희옥 총장은 ... 194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68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전체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1972년 동국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지검, 대구지검, 서울지법, 수원지법,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생활을 거치고 2005년 9월 법무부 차관,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다. 2011년 2월부터 동국대 제17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1968년 독심 봉은사와의 첫 만남

저의 불교생활에 비추어 '나의 불교생활과 불교적 가치 구현'이란 주제는 다소 거창하다고 생각드네요. 먼저 개인적인 신행 생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경북 청도서 나고 자라며 부모님을 따라 운문사, 대바사 등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습니다.

봉은사와 인연은 196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국대 수석 입학 이후 서울대 서돈각 박사님과 함께 봉은사를 찾았습다. 당시 봉은사에는 법정 스님이 계셨습다. 스님께는 '동국대에 톨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제 소개를 들으시고는 '툨은

탄허 스님 '금강경' 법문에 감동 절에서 고시 준비하며 수행 삶의 굴곡마다 스님들 조언

나무를 잘 썰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으로 공직생활하는 동안 강남지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봉은사에 다니게 됐습다. 그 인연으로 사찰에서 사법시험도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다시 손자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2살인 손자를 데리고 오니 절분위기를 무서워하는 듯 보였습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 절에 오면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다. 자주 데리고 오면서 절 분위기에 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허 스님 강연 듣고 불교서적 탐독 본격적인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에 입

학 한 이후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 별은 왜 반짝이는가' 등 철학적 고민을 할 나이에 접한 불교는 일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됐습다.

동국대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1968년 월정사 탄허 스님이 동국대에서 30일동안 <금강경>을 주제로 법회를 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의 전신인 대학선원 선원장을 맡고 계셨습다. 아시다 시피 탄허 스님은 매 법회 때마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다. 당시 저는 탄허 스님의 강연을 듣고 '아! 이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다. 저는 스님의 강연으로 인해 본격적인 불교공부에 나섰습다. 당시 청담 스님의 삼보법회를 비롯해 감사 등을 다니며 수련대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쌓은 사상편력은 제가 부처님 연기 사상을 확실히 믿고 이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됐습다.

사법 시험을 준비하며 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주 회암사, 청계산 청계사, 해인사 흥제암 등을 다니며 고시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절에서는 예불 참여하고 참선도 해야 공부를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수행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더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시험 합격 이후 한 잡지사에서 합격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정진에 들며 한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다. 저는 이런 각오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격기에 썼습다.

그 이후 공직생활을 하며 수시로 절을 찾고 여러 스님들께 삶의 굴곡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통영 검찰청에 있을때는 용화사 일각 스님이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다. 근일 스님, 회암 스님 등에게 화두를 받고 수선안거에 들기도 했습니다.

또 막스 밀러라는 19세기 철학자이며, 인도사상가의 '하나의 종교만을 알면 어느 종교도 모르는 것이다'는 말에 지극반야 대학 시절 성경, 교란 등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가치 사회 구현에 불자들 나서자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에 구현되는 것은 모든 불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불교가 사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자들의 바램을 넘어 사회의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가신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삼보에 귀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고행과 쾌락을 피해야 합니

삼보 귀의·연기법 믿고 따르는 불자적 삶은 헌법가치 실현 사회갈등 치유에 불자 나서자

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들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모든 행이 시작돼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목표는 고통 해결입니다. 모든 것이 고의 해결이 목적입니다. 불자는 존재론에서는 연기법을 철저히 신뢰하고 고를 소멸시키기 위해 일대중대사로 노력하는 사람,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행방법은 참선, 기도, 사회봉사 등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불교의 생활화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충돌입니다. 무인도에 홀로 사는 로빈슨 크루소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며 그 존재에 가치를 부여받습다. 다행

히 사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칙적인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법으로부터 인정받는 종교의 자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 포교와 교육 등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현대사회의 자유주의는 근대에 들어서며 종교의 자유가 획득됨으로 인해 시작됐습다. 인권의 자유 등이 종교 자유에 이어 뒤따라 온 것입니다. 법제도에 의해 존중받는 종교의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공통적으로 추구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 진선미 등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준법정신의 발현입니다. 그 정신 아래서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자유, 종교평화 등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회 평등을 실현하고 계급사회를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동체 안의 평화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셨습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현대사회의 사회규범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헌법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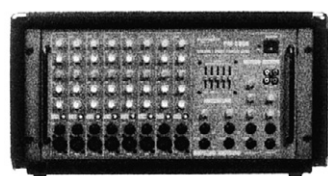
헌법가치는 우리 사회의 공동가치를 높이며 개개인의 가치를 살리고 있습니다. 불자로서의 삶이 곧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갈등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사회 불안족도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지만 개개인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집단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습해가는 것이 불자들이 나서야 할 길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파워앰프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블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이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